

< 긍정적인 생각의 기원 >

이사야 55:6-9 / 새찬송가 25 (통일 25) 면류관 벗어나서

**1. 모든 것이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**

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. 하나님을 믿으니 결국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 잘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장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은 게을리 하게 됩니다.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(렘14:13,14).

부정적인 생각은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래에 대한 준비와 회개를 이끌어냅니다. 즉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(전7:14).

**2.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**

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다 잘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높고 잘 안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높습니다(사55:8,9).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. 그 생각이 너무나도 좋기에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가달을 수 없습니다.

옘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현실적 평안과 축복을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우신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.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甦는 것을 소원했으나 예수님은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!

예레미야는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,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'평안과 미래와 희망'이라 표현했습니다(렘29:11).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 미래와 희망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. 축복이나 행복은 어제나 오늘에 머무르거나 끝나는 것이나 미래와 희망은 '끝까지'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.

### 3. 나의 생각을 판단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

그래서 ‘절대 긍정’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나는 나의 낙관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의 생각을 다 중지하고 판단도 중지해야 합니다. 이 판단중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황홀한 체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(고후 12:4).

그 후에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,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. 그저 믿는 것입니다(전3:11)! 믿음이란 몰라도 믿는 것입니다.

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(시37:4-6). 이게 절대긍정의 생각이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.

#### <적용&실천>

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, 계산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.